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9. 20.(수) 배포즉시 배포 2023. 9. 20.(수)

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

-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
-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프랑스 측과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 지속

프랑스 정부(경제부)는 현지시각 9. 20.(수) 01:00(우리 시간 9. 20.(수) 08:00)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하였다.

프랑스 측은 지난 7.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(7. 28.~8. 25.)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공개하였다. 이와 관련,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번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 계수 산정근거 명확화, 해상운송계수의 수입 전기차 차별 문제, 세계무역기구(WTO)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의견서(8. 25일 제출)를 통해 제시하였다.

프랑스 측은 그간 우리 측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을 반영하여, 이번 최종안에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하여 철강 등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,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,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이내에 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. 다만, 우리 측이 외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한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같게 유지되었다.

산업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업계와 긴밀한 협의로 그간 4차에 걸쳐 프랑스 정부와 적극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.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('24. 1. 1일 시행)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프랑스 측과 실무·고위급 협의를 지속하여 탄소배출 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산업부	구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이상헌	(044-203-5660)
		담당자	서기관	권순심	(044-203-5661)
	자동차과	책임자	과 장	최보선	(044-203-4320)
		담당자	사무관	안준호	(044-203-432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